

#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재보다 51% 증가!

2019년 넘버즈 창간호의 주제는 ‘인구 절벽’이었다. 그만큼 다가올 한국 사회와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 첫 주제로 선정했었다. 이후 넘버즈 128호(2022.1.)에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을 다룬 이후 올해 넘버즈 첫 번째 주제로 인구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었다. 그만큼 인구 문제는 한국교회에 시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다.

보통 장래인구를 추계할 때는 불확실성을 감안,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1개 시나리오에 의해 고위(최선의 가정), 중위, 저위(최악의 가정) 추계를 발표하는데, 보통 언론에 발표되는 수치는 중위 추계에 기반한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2년의 합계 출산율이 4년 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저위’ 예상 추계에 가깝게 나왔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더 빠른 고령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년 뒤 현재보다 51% 증가하고,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넘버즈 222호>에서는 10년 뒤 일어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중단기적 미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자 했다. 인구 절벽 시대에 고령자,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저희 연구소가 설립한 이후 이제 6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전국 구독자의 기도와 후원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회데이터연구소 직원 일동**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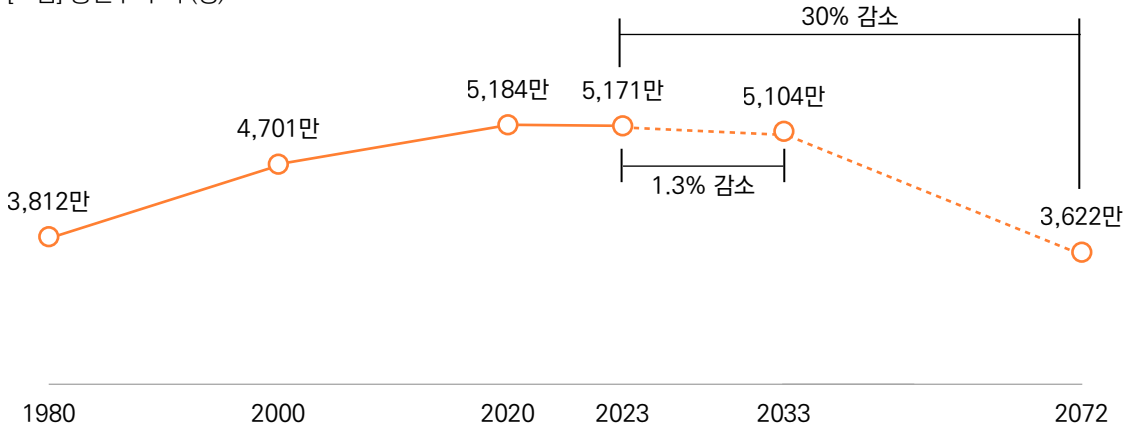


# 01

## [10년 뒤 인구 변화] 우리나라 인구 감소중이지만, 10년 뒤 크게 줄지 않아

- ▶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1980년 3,812만 명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5,184만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앞으로 10년 후인 2033년 우리나라 인구가 5,104만 명으로 현재 대비 1.3%가 감소되고, 50년 뒤인 2072년은 3,622만 명으로 2023년 현재 대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총인구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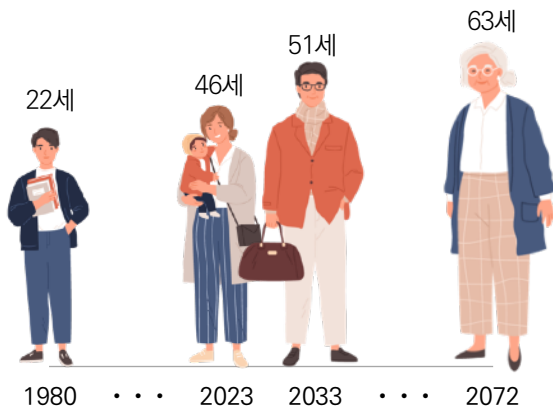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 중위연령, 2023년 46세 → 10년 뒤 51세!

- ▶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을 '중위연령'이라 일컫는데 1980년에는 중위연령이 22세였고, 2023년은 2배 이상 높아진 46세, 10년 후인 2033년은 51세, 50년 후에는 무려 63세가 우리 국민의 중간 나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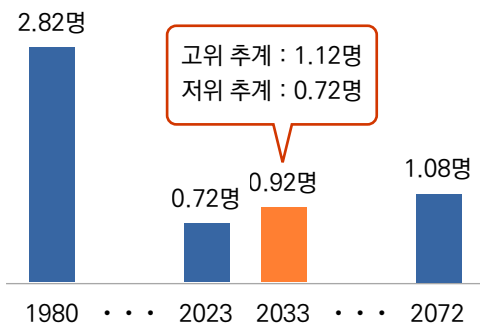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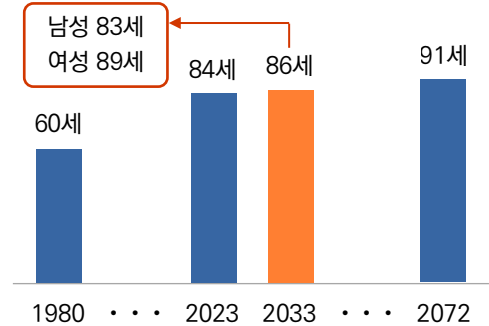
## ◎ 10년 뒤인 2033년 기대수명 86세(남성 83세, 여성 89세)!

-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에도 1명이 채 안 되는 0.72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인구추계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이동'의 인구변동 요인을 가정하여 고위(최선의 가정), 중위(대푯값), 저위(최악의 가정) 추계를 함께 발표하는데, 2033년 합계출산율은 중위추계 기준 0.92명으로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러나 최악의 가정인 '저위 추계'로 본다면 2033년 합계 출산율은 2023년의 출산율과 동일한 0.72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10년 동안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 ▶ 2023년의 기대수명은 84세(남성:81세, 여성:86세)인데 10년 뒤는 86세(남성 83세, 여성:89세), 50년 후엔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합계출산율 추이 (가임여성의 평생 출생아 예상 수)



[그림] 기대수명 추이 (출생아의 기대 생존 연수)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02

## [고령화]

###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인구, 현재보다 51% 증가!

- ▶ 2023년 기준으로 10년 후의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총인구는 1.3% 정도만 감소하지만 유소년 인구는 33%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무려 5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노인 교인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고령 친화적 교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향후 10년간 인구 변화 (연령별)

(단위 : 만 명)

연도	총인구			
	계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생산연령 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23	5,171	571	3,657	944
2033	5,104	380	3,298	1,426
증감률	-1.3%	-33%	-10%	51%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 10년 후 85세 이상 노인 74% 증가!

- ▶ 고령 인구를 10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2023년 98만 명에서 2033년 171만 명으로 10년간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 고령인구 연령대별 인구 변화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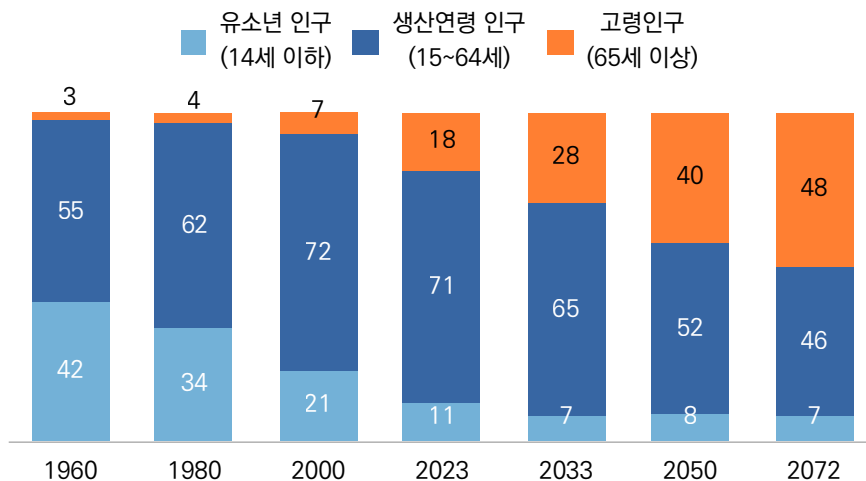
구분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계
2023	551	295	98	944
2033	787	468	171	1,426
증감률	43%	59%	74%	51%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 이대로 가면 50년 후 노인이 인구의 절반 차지!

- ▶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의 추세로 가면 고령인구 비율은 10년 후인 2033년에는 28%로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4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반면, 유소년 인구는 2023년 현재 총 인구의 11%정도 되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고령화사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14%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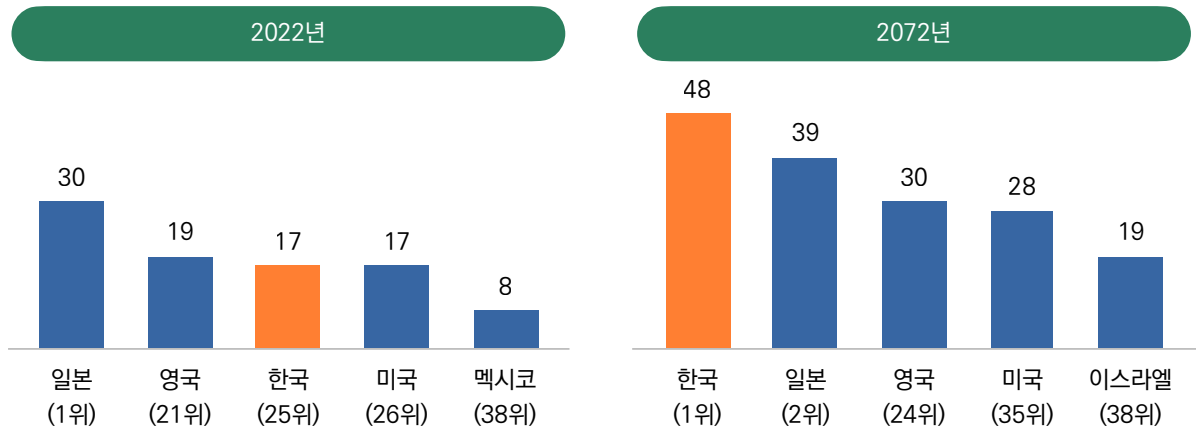
고령사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20%인 경우

초고령사회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인 경우

## ◎ OECD 고령인구 비율, 한국 2022년 25위→2072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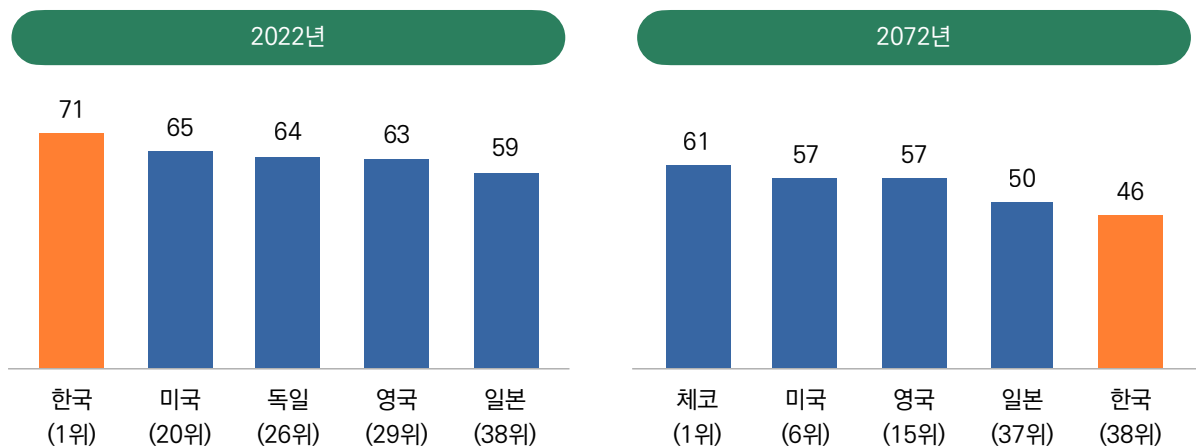
- ▶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이 향후 50년 뒤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OECD 국가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 ▶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17%로 OECD 38개국 중 25위, 즉 중하위권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2072년에는 48%(1위)로 OECD 국가 중 가장 노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위에서 2072년 38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실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면 46%로 떨어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OECD 38개국 중 주요국, %)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그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 (OECD 38개국 중 주요국, %)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 03

## [교회학교 인구변화]

### 교회학교, 일반 학령인구 대비 감소 속도 2배 빨라!

- ▶ 이번에는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를 일반 학생과 교회학교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학생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 19% 감소한 반면, 교회학교 학생(예장통합)은 37%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교회학교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2배가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교회학교 초등부의 증감률(-36%)이 일반 초등학생(-4%)보다 9배가량 더 높은 감소 속도를 보여 현재 한국교회 초등부가 큰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부모인 3040세대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이다.

[표] 초중고 학생인구 변화  
(일반학생 vs 교회학교 학생) (단위 : 만 명)

구분	2013	2022	증감률
일반 학생	653	527	-19%
교회학교인구** (예장통합)	34	21	-37%

\*일반학령인구: 교육부 '2023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3.08.30.

\*\* 교회학교 인구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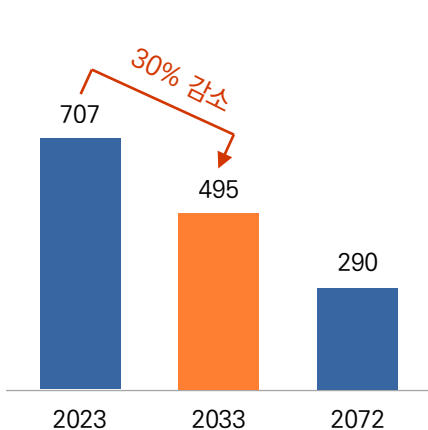
[표] 학령별 인구 변화 : 일반 vs 교회학교

구분		2013	2022	증감률
0~6세	일반 영유치아	326	220	-33%
	교회 영유치부**	10	7	-42%
초등 학생	일반 초등생	278	266	-4%
	교회 초등부**	18	11	-36%
중고등 학생	일반 중고생	370	261	-30%
	교회 중고등부**	16	10	-38%

### ◎ 10년 후 초등학생 수 절반 가까이 감소!

- ▶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 예측치를 살펴보자. 2023년 707만 명에서 2033년 495만 명, 2072년에는 29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영유아+초중고 학생 인구는 30% 감소할 전망이며, 그중 초등학생의 예상 증감률은 -47%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영유아+초중고 인구 변화 예상 (만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표] 학령별 인구 변화 예상

구분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계
2023	173	261	136	136	707
2033	153	138	88	115	495
증감률	-12%	-47%	-35%	-15%	-30%

## ◎ 출산율, 국가 통계 예상 시나리오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

- ▶ 4년 전인 2019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0.90명이었지만 실제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오히려 저위 추계인 0.72에 더 가까웠다. 이는 예상 시나리오보다 더 출산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 ▶ 2022년의 14세 이하 실제 인구수도 4년 전 예상한 중위 추계 599만 명에 못 미치는 595만 명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19년 당시 통계청의 2022년 예상과 실제결과 비교

지표		2019년 당시 통계청 예상**			실제 결과
		고위 추계	중위 추계	저위 추계	
합계 출산율 (%)	2022년	1.12	0.90	0.72	0.78
	2033년	1.42	1.19	1.00	
	2065년	1.45	1.27	1.10	
0-14세 인구수 (만 명)	2022년	619	599	586	595
65세 이상 인구수 (만 명)	2022년	901	898	893	898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2023.12.13.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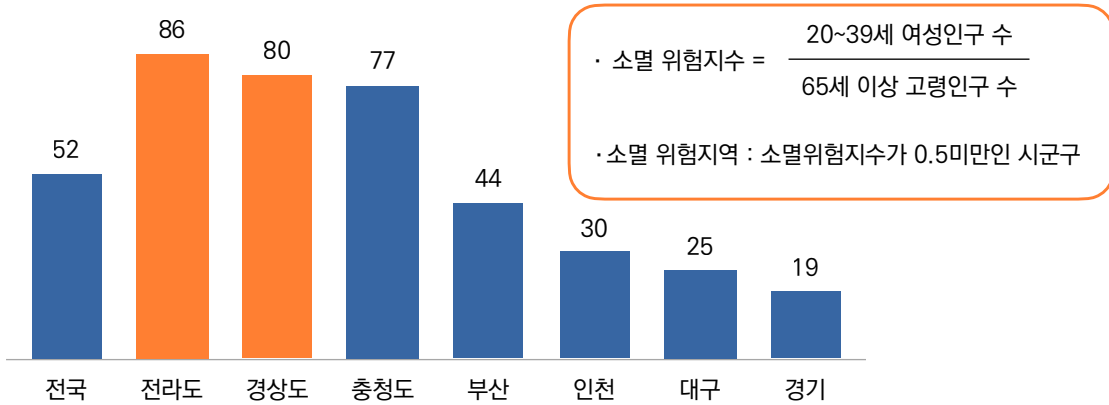
# 04

## [지방 소멸]

### 전라도, 경상도 지자체 80% 이상 소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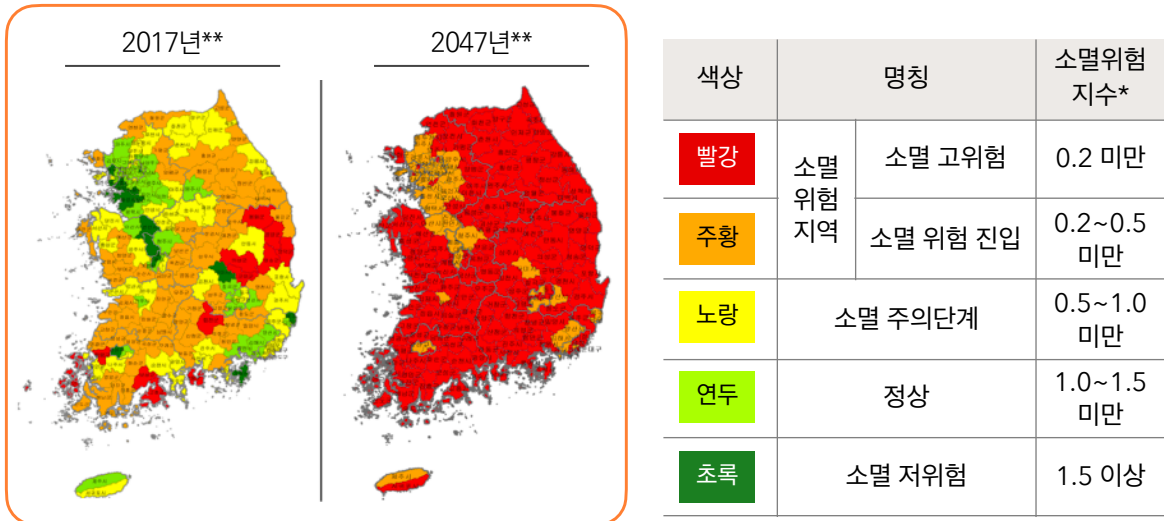
- 인구의 감소는 곧 지방 소멸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 지역(소멸 고위험+소멸 위험 진입, 소멸위험지수 0.5미만)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이었다. 특히 '전라도(86%)', '경상도(80%)', '충청도(77%)'의 경우 해당 시도의 소멸 위험 지역이 80%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림] 시도별 소멸 위험 지역 비중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통계로 본 지역고용\_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2023.03.31.

[그림]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 위험 현황 (2017 vs 2047)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통계로 본 지역고용\_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2023.03.31.

\*\*자료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2021.07., P.30.



## ◎ 지방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인 수는 오히려 더 증가!

- ▶ 지역별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 기준으로 총인구 증감률은 -9%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절대인구는 줄지만, 노인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특히 농어촌교회의 경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표] 지역별 총인구와 65세이상 인구 변화

(단위 : 만 명)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2020년	2050년	증감률	2020년	2050년	증감률
8대 도시**	2,280	1,898	-17%	348	735	112%
경기	1,345	1,435	7%	172	522	203%
강원	152	148	-3%	30	70	130%
충청	381	379	-1%	67	163	143%
전라	360	301	-16%	78	145	86%
경상	599	503	-16%	111	237	114%
제주	67	70	4%	10	27	165%
<b>전체</b>	<b>5,184</b>	<b>4,736</b>	<b>-9%</b>	<b>815</b>	<b>1,900</b>	<b>133%</b>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20~2050년', 2022.05.2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특별시1, 광역시6, 특별자치시1)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월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70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나라는 분석 대상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 2075년 세계 경제 규모 순위 예측에 있어 중국(1위), 인도(2위)는 미국(3위)을 제칠 것이며 인도네시아(4위), 파키스탄(6위) 등 아시아국의 성장을 예상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는 선진국이 직면해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선진국인 유럽, 일본 등은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안정성이 나빠지는 한편, 후진국 중 일부는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대국이 된다는 시나리오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소멸 국가' 제1호로 한국을 지목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붕괴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국은 2020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거쳤는데 이는 2019년에 통계청이 예측한 시기를 무려 8년이나 앞당긴 결과이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는데, 이는 2019년에 예상한 저위 추계(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여서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 보고서의 수치보다 미래가 더 비관적일 수도 있음을 염두에 뒀어야 할 정도이다.

넘버즈에서는 이미 두 차례 '인구 문제'(창간호, 128호)를 다루었다. 이번 호는 50년 후까지 보지 않고 우리 앞에 곧 다가올 10년 후의 인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0년 후만 앞당겨서 보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선 10년 뒤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고령인구 수와 비중은 크게 늘어난다. 65세 고령 인구는 현재보다 51% 증가하고,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은 무려 7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 자체가 소멸한다는 경고가 있지만 그 이전에 노인 인구가 10년 후 1.5배, 30년 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당장 대비하는 것이 발등에 놓인 불이다.

또한 10년 뒤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초등학생은 절반(증감률 -47%) 가까이 감소한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교회 초등부가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일반 초등학생이 4% 감소할 동안 교회 초등부가 36%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본문 7쪽), 여기에 향후 10년간 초등학생이 47% 줄어든다면 인구소멸은 교회학교의 교실에서 먼저 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인구 변화에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교인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10년 후 중위연령(총인구의 한가운데 연령)이 51세인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교회의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교인 가운데 노인 비중은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현재 농어촌교회에 고령자 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풍경이 도시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노인이 돼서도 교회의 주체로서 사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노인 교인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보완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청년의 신앙과 3040세대 가정을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어야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풍토는 성경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점점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고 본받을 수 밖에 없는 학령기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의 허리인 3040세대의 신앙을 더 보살피고 격려해야 한다. 노인을 잃으면 현재 교회의 성도가 없겠지만, 교회학교를 잃으면 미래의 교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목회자 조사를 할 때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목회 키워드로 '다음세대'가 주로 꼽혔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다음세대를 신경 쓰기도 전에 먼저 다가올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야 할 갈림길에서 있다.

1) 예정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